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성공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음 7월 14일) 제211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태풍 '솔릭' 오늘까지 영향 전북도, 재난책 3단계 격상

50mm 이상 집중호우 최대 30m/s 강풍 동반

문 대통령 "국민 생명 최우선 위기관리 능력 발휘" 당부

송 지사, 도・시군 등에 "행정력 초집중해야" 강조

전북도는 제19호 '솔릭(SOULIK)'이 23일부터 24일 사이에 도내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가동했던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체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태풍은 전북도내 지역이 태풍의 우측반원에 속해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누적 강수량이 50~15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와 함께 최대 풍속이 20~30m/s 이상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태풍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30분 태풍대비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각부처와 17개 광역시도 등으로부터 대처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긴 폭염에 이어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염려되고,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임시 휴교, 출근시간 조정 등 일상생활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어 14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유관기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태풍대비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태풍 경로가 변경되어 전북지역을 관통하는 상황인 만큼 긴장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도・시군・유관기관・도민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초집중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공사중인 전국체전 경기장들은 피해가 없도록 현장점검 및 대책 강구 등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항포구에 정박되어진 소형어선 육상인양 조치, 하천 둔치 주차장 이동주차 및 주차장 폐쇄 조치사항 등을 확인했다.

또한 산사태 우려지역과 급경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해안가 상가 및 주택 등에 대해 예찰 강화를 통해서 필요시 대피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살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 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 관계자 구성원 각자가 비상한 각오로 태풍 대응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들어선 23일 전주시 완산구 완산서초등학교가 단축 수업을 시행하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태풍, 전북 통과 예상… 도교육청, 오늘 전체 학교 휴업령

"돌봄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교직원들은 정상근무"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24일 도내 전체 학교에 임시 휴업령을 내린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예상과 달리 태풍 솔릭의 북상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북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도내 전체 학교에 휴업명령을 내렸다.

이에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전체 학교(1307곳)는 임시휴업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전체 학교에 대한 휴업령을 내리지 않을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태풍의 이동속도가 너무 느리고 24일 등교시간 무렵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 같은 판단에 휴업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교직원들은 정상근무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이날 전북지역에서 임시휴업하거나 등하교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278개교로 잠정 집계됐다.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할 경우 407개교이다. /김재훈 기자

한국 대표팀, 조정에서 은메달 3・동메달 1개 수확

자카르타・팔렘방 AG… 김동용 男 싱글 스컬, 김예지・김슬기 女 더블 스컬서

김동용(27・진주시청)이 아시안게임 조정 남자 싱글 스컬에서, 김예지(24・충주시청)와 김슬기(29・수원시청)는 여자 더블 스컬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무타페어에서도 전서영(29)・김서희(28.이상 송파구청)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여자 경량급 쿼드러플 스컬에서는 지유리(30・화천군청), 최유리(28), 정혜리(24・이상 포항시청), 구보연(21・한국체대)이 동메달을 따냈다.

김동용은 23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시티 레가타 코스에서 열린 남자조정 싱글 스컬 결선에서 7분30초86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싱글 스컬은 한 선수가 2개의 노를 젓는 종목으로 김동용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예지와 김슬기는 조정 여자 더블 스컬 결선에서 7분34초73의 기록으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중국의 장옌・리징링은 7분33초55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4년 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김예지는 싱글스컬 금메달, 김슬기는 쿼트러플 스컬에서 은메달을 땄다.

여자 무타페어에서 전서영・김서희는 8분00초25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은 7분55초50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중국의 쥐루이・린신위에게 돌아갔다.

여자 경량급 쿼드러플 스컬 결선에서는 한국이 7분06초22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조정 남북 단일팀은 남자 무타포어에서 6위를 기록했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마당창극, 이탈리아行

'변사또 생일잔치', 11월말 피렌체・로마 등 순회공연

전주마당창극이 피렌체와 로마 등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선보인다. 〈관련기사 4면〉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18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9900만원을 확보,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피렌체와 로마, 만토바, 베네치아, 노비리구레 등 이탈리아 5개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페라로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한국의 전통문화공연을 선보이며 오페라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장르인 한국의 창극을 유럽문화권에 알리는 동시에 전통문화한류의 유럽진출 가능성을 평가 받는다.

공연단은 이번 공연을 '피렌체 뮤직&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하며 오는 12월 1일 로마 '산티빈첸쪼&아나스타시오 성당'과 3일 피렌체 '프랑코제피렐리 기념관', 5일 만토바 '비엔나 극장', 8일 '노비리구레 시립극장'에서 마당창극 공연을 하게 된다.

또, 12월 6일에는 베네치아 광장에서 판소리와 민요, 연희패의 거리버스킹 공연 등 총 5회 공연을 한다.

이에 앞서, 그간 세계 각국의 우호도시들과 문화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해온 전주시는 이번 문화교류 공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주한 이태리 영사관 Riccardo Gelli 고문과 피렌체 Centro Studi 음악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왔다.

그 결과 이번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우수한 전주의 공연문화를 유럽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됐다.

한편, 전주마당창극 '변사또 생일잔치'는 '춘향가'를 소재로 한 2018년 초연작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야기가 아닌 변사또 관점의 이야기와 새로운 등장인물인 도화, 새로운 에피소드와 다양한 재미를 추가해 우리 소리의 감동과 함께 한국의 흥과 신명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전주시민과 관광객은 10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8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